

# 잘못된 낙농관행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21C를 시작하자



강 의 웅  
본회 이사



지난 세기 30여 년간 앞만 보고 뛰는 과정에서 버리지 못했던 조령모개식 정책, 낙농지도자간의 반목과 갈등, 부업같이 적당히 경영해 온 목장운영, 창의력보다는 모방하기, 앞날을 내다보기 보다는 목전의 이익에 급급했던 조급한 행동은 버리자. 이런 것들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 올 수 있지 않은가. 21세기는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우** 리나라 낙농이 태동한 20세기는 가고 기대와 설렘으로 21세기와 새 천년을 맞았다.

지난 세기 후반기의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낙농산업은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WTO 체제의 출범으로 낙농시장이 활짝 열리면서 성장은 둔화되고 경쟁력 없는 수많은 낙농인들이 퇴출되었다.

지난 해는 세기말 답게 온 세상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웠다. 우리 축산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축산 지도자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루었고, 협동조합 통합문제로 1년 내내 큰 진통을 겪었다.

이 와중에서 21세기 우리 낙농 발전의 밑거름이 될 큰 획을 그은 반가움도 있었다. 집유일 원화의 걸음마와 낙농자조금을 조성한 일이다. 21세기 벽두부터 재개될 2004년 이후의 농산물과 서비스 개방에 대한 뉴라운드 협상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시애틀의 협상이 결렬되었으나 금년에 계속 열릴 런던 협상을 통해 농축산물 수출국들이 보조금 삭감과 관세 인하를 관철시키려고 끈질긴 공세를 취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 낙농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시유를 포함한 모든 유제품이 외국 상품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정녕 21세기 한국 낙농의 미래는 없는 것인가. 앞이 캄캄하기는 하나 빛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빛이 어둠을 사르고 더욱 빛날 수 있지 않겠는가.

빛을 찾으려면 우리는 먼저 버려야 한다. 지난 세기 30여 년간 앞만 보고 뛰는 과정에서 버리지 못했던 조령모개식 정책, 낙농지도자간의 반목과 갈등, 부업같이 적당히 경영해 온 목장운영, 창의력보다는 모방하기, 앞날을 내다보기 보다는 목전의 이익에 급급했던 조급한 행동은 버리자. 이런 것들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은가. 21세기는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원칙이 아닌것부터 버리자. 우리는 그 동안 원칙을 외면하면서 당장 이로운 것, 쉬운 것부터 받아 들인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은 낙농을 알지 못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길 한두번이 아니었으며, 낙농진흥이나 발전을 위한 정책보다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다보니 낙농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되고 비교우위론까지 가세해 낙농인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다.

우유는 식량이다. 아침마다 식탁에 오르는 기본식량이다. 가장 완전한 식품이다. 어떤 논리에 앞서 매일 식탁에 오르는 기본식량을 자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자. 기본 식량도 사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자. 이 같은 기본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웃 일본의 낙농정책은 타산지석이다.

낙농 지도자들의 목 힘주기와 아집도 버려야 한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했다. 지난 세기에는 선무당 같은 낙농지도자들이 우리 낙농의 틀을 망쳐 놓은 점도 없지 않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낙농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정부정책보다도 이들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걸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사이비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소속단체의 이익을 앞세워 낙농의 미래를 외면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 그 좋은 예가 집유 일원화 참여 거부와 낙농자조금 조성 반대 등이다.

낙농인 모두가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자. 소의 생리를 잘 알면서도 배합사료 비싼 것 먹이면 낙농 잘하는 것으로 아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자. 소의 생리에 맞게 조사료 위주의 사양관리로 바

꾸자.

돈 많이 들여 시설하고 큰 기계 많이 사고 소 숫자 많으면 "큰 목장"이라는 환상을 버리자. 낙농을 망치는 모든 것을 버리자. 낙농 원칙을 지키는 프로 낙농인이 되자.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세기라고 하지 않는가? 지금까지의 산업화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이 온다고 한다.

우리 낙농인도 머리는 굳었어도 공부 좀 하자. 제대로 알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터득하자. 지식낙농·정보낙농을 하자. 원칙을 지키는 낙농, 벤처 정신에 충만한 낙농을 해보자.

돈키호테적 발상도 가져보자. 목장마다 머리 좋아지는 우유, 암 예방에 효과 있는 우유도 만들자. 저온 살균우유도, 무살균 우유도 생산하자. 오늘 아침 짠 우유를 소비자의 그날 아침 식탁에 올리는 목장을 만들자.

미국이나 뉴질랜드에서 할 수

없는 낙농을 해 보자.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낙농경영을 하자. 낙농 산업은 국민의 식량을 확보하고 귀중한 건강과 직결된 산업 중의 산업이다. 지식과 정보가 주도하는 새로운 세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낙농산업의 위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생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식품, 쾌적한 환경에 부응한다면 21세기의 한국 낙농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정부는 나름대로 낙농 발전을 위한 정책 노력과 각종 지원을 해 왔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21세기에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낙농을 아는 정책입안자들이 예측가능한 정책을 세워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열면서 당면 과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낙농을 천직으로 알고 부단히 배우고 개선



하고 노력하는 낙농인을 위한 정책 수단을 펼쳐가야 한다. 경영자금, 시설자금 등 자금 지원은 물론 낙농관련 제도 개선도 혁신적인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정비되어야 한다.

낙농을 한다면 무차별 모두 지원했던 무대책은 없어져야 하고, 낙농을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까다로운 규제는 풀어야 한다. 목장에서 치즈도 저온살균우유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개방화도 좋지만 울타리 단속을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최선을 다해 대처하지 못하여 전지분유, 모조분유가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뉴라운드 협상은 올해 다시 시작할 것이다. 더 이상 잘못 대처해서 한국 낙농을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일이 없어야겠다.

낙농진흥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발전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자조금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제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우유 파동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낙농 지도자들은 화합하고 단결하자.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기까지는 자신이나 낙농인들의 의견을 대신하

여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나 일단 법이 제정되었으면 그 법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어 전체 낙농인의 이익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다.

낙농자조금 조성의 참뜻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자조금을 내지 말도록 선동하는 지도자는 없어야 한다. 아는 것이 없으면서 목에 힘주고 목소리만 높이는 지도자도 이젠 필요 없다. 낙농단체, 협동조합 지도자들의 각성이 요청된다.

21세기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유지 발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궁극적으로 우리 낙농인에 달려 있다. 지난 세기와는 달리 이제 는 누가 우리를 도와 주려니 해서는 안된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한국 낙농의 장래를 개척하자.

정보 통신의 발달로 원하기만 하면 세계 어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도 살 수 있고, 어떤 제품이 좋고 안전한지도 훤히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가 생산한 우유라고 해서 국민에게 사라고 강요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시유시장은 지켜야 하고, 국민의 식탁에 우리 우유가 올려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신선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유를 생산했을 때만이 국민이 우리 낙농 제품을 선택하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몇 년내에 원유 가격이 보다 철저한 위생등급이나 단백질이나 무지고형분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21세기의 낙농인은 무엇보다 투철한 직업관, 프로 정신으로 중무장 해야 한다. 우리가 생산한 원유의 품질, 가격이 뒤떨어지거나 생산비가 높으면 아무도 사주지 않게 된다. 낙농에도 품질제일주의시대가 왔다. 내가 생산한 원유의 품질이 최고여야 하며, 생산비를 가장 적게 들고 생산해 내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유가공업체는 신제품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비수기 원유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시급하다. 우리의 원유생산비가 더 많이 들고, 우리의 노동시간이 더 드는 것은 어쩔수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산한 원유의 질이나 안전성에 있어서 선진 낙농국에 떨어져서는 안된다. 이 점을 매일 매일 머리 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한국 낙농산업의 성패가 이제 는 시설, 기계, 작물포 크기보다는 이들을 잘 활용하고 정보와 지식을 얻고 그를 매일매일 실천에 옮기는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 이것이 21세기를 시작하는 한국 낙농인의 과제이다. (㉞)

〈필자연락처 : 0334-676-6670〉